

유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연령, 기질과 양육행동의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

강 지 현[†]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오 경 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유아의 연령 및 기질, 그리고 부모양육행동이 유아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를 파악하기 위하여, 만 3-5세 유아 339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유아의 기질, 부모 양육행동을 부모 보고에 의해 측정하였다. 변량분석과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에서 연령과 성별의 주효과가,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에서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아에게서는 자극추구 기질, 위험회피 기질, 적대적 부모 양육행동이 두 문제행동의 유의미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여아에게서는 자극추구 기질, 위험회피 기질, 온정적 부모 양육이 두 문제행동의 유의미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문제행동에 있어서 여아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의 영향을, 남아들은 기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유아기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적 개입의 방향에 대해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유아의 기질, 부모 양육행동, 위계적 회귀 분석

* 본 원고는 강지현(2009)의 박사학위논문 자료의 일부를 재분석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강지현,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서울시 성북구 월곡동 23-1호
Tel: 02-940-4497, E-mail: counsel4u@dongduk.ac.kr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여러 가지 심리적,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되는 유아기는 다른 발달 단계에 비해 적응에 취약한 시기가 될 수 있다. 이 시기동안 발생하는 심리사회적 문제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많다(Campbell, Shaw, & Gillom, 2000).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유아기의 문제들이 학령기를 지나 성인기까지 지속되기도 한다는 것이 최근 종단연구들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고되고 있다(예: Côté, Vaillancourt, Leblanc, Nagin, & Tremblay, 2006; Leblanc, Boivin, Dionne, Brendgen, Vitaro, Tremblay, & Pérusse, 2008 등). 유아기 심리적 부적응은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유아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심리적 부적응의 양상이 어떠하며 성별이나 연령, 유아 개인 내적인 요인이나 주변의 환경 요인이 그러한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신병리에서 심리적 부적응을 논의할 때 크게 범주적 접근과 차원적 접근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개인이 특정 장애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진단하고 분류하는 범주적 접근의 대표적인 예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Statistical Manual: DSM) 체계인데, 이러한 접근은 실무율적인 분류의 성질 때문에 관련 증상의 정도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와는 달리 차원적 접근에서는 정상과 병리사이에 연속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특정 장애와 일치하는 증상이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정도에 따라 수준별로 개인을 평가하게 된다. 차원적 접근을 통해 개인의 증상을 이해할 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은 발달적 차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진단 기준이 발달 단계에 따라 동일하지 않고, 증상이 나이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적 접근의 대표적인 예가 Achenbach와 McConaughy(1997)가 중다변인적 통계적 접근을 통해 개발한 아동행동체크리스트(Child Behavior Checklist: CBCL)이다. 문제행동 항목을 수집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넓은 요인(wide-band)과 좁은 요인(narrow-band)이 추출되었으며, 넓은 요인은 내재화 문제행동(internalizing problem), 외현화 문제행동(externalizing problems)으로 명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Weisz, Suwanlert, Chaiyasit, Weiss, Walter, & Anderson(1988)이 정신 장애를 구분하는 두 개의 축으로서 제시한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차원을 이용하여 유아의 심리적 부적응의 문제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내재화 문제는 위축, 신체적 호소, 불안/우울 등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 신체적 증상 등 정서적이고 지나치게 통제된 행동 등을 의미한다. 외현화 문제는 비행행동, 공격행동, 주의집중의 문제 등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격적인 행동, 싸움, 비행 등 통제가 부족하고 부적응적 행동이 겹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문제가 아닌 넓은 요인(wide-band)을 사용한 구분이 유용한 이유는 유아기나 아동기에는 성인기에서와는 달리 각 문제들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발달 단계별로 그 양상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즉, 분리 불안이 어린 유아에게서는 주양육자와 분리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악몽을 꾸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좀 더 나이든 아동에게서는 분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별

진단명으로 추적하였다면 동일한 기질을 공유함에도 다른 증상으로 분류되었을 문제 증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이점을 지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유아기 혹은 아동기에 보이는 적응상의 문제들은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문제 행동이 이후에 우울문제를 수반하게 되는 것처럼 내재화 혹은 외현화 문제행동의 유형을 넘나드는 형태로 발달해나간다는 결과들이 종단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예: Fanti & Henrich, 2010; Gillom & Shaw, 2004). 따라서 특정 문제행동이 아닌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축을 통해 부적응의 문제들을 고찰하는 것이 현상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문제행동에는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일찍부터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하여 아동의 내적인 취약성으로는 기질 요인을, 환경적 영향으로는 부모 양육행동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였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변인에 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까다로운(difficult) 기질’(Sanson, Smart, Prior, & Oberklaid, 1993; Thomas & Chess, 1977), ‘낮은 수준의 적극적 통제(effortful control)’(Nigg, 2006; Olson, Sameroff, Kerr, Lopez, & Wellman, 2005), ‘둘 다 높은 수준의 자극추구(Novelty Seeking)와 위험 회피(Harm Avoidance)’(Retzew, Althoff, Dumenci, Ayer, & Hudziak, 2008) 등의 기질 차원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와 관련되는 공통의 위험요인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행동 억제 기질(behavioral inhibition)’(Biederman, Hirshfeld-Becker, Rosenbaum, Herot, Fiedman, Snidman, Kagan, & Fraone, 2001; Mick & Telch, 1998)은 주로 내재화 문제행동과 ‘두려움없는

기질(fearlessness)(Kagan, 1997; Shaw, Gillom, Ingoldsby, & Nagin, 2003), ‘무정한-정서가 갖지 않은 기질(callous-unemotional)’(Frick, O’Brien, Wootton, & McBurnett, 1994; Lahey, Waldman, & McBurnett, 1999)은 주로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등 특정 문제행동 영역과의 관련성이 주로 보고되는 기질 차원도 있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부모 양육행동으로는 낮은 온정성, 높은 지시성 높은 신체적/언어적 처벌 요인을 포함하는 ‘적대적이고 거절하는’ 양육(Shaw, Owens, Giovannelli, & Winslow, 2001)과 ‘엄격하고 과잉 통제적 양육’(Rubin, Hastings, Stewart, Henderson, & Chen, 1997)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높은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어 왔다. 보다 최근에는 특정 기질이나 부모 양육방식의 영향력이 강조되기보다 기질과 부모의 양육동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Patterson, Reid와 Dishion(1992)이 제시하는 반사회적 행동의 기원에 대한 설명과 Rubin과 Mill(1990)이 제시하는 내재화 장애의 기원에 대한 설명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Patterson 등(1992)은 아동의 특성보다 부모양육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심각한 수준의 품행문제에는 아동과 부모간 강압적인(coercive) 양육 유형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상대방을 괴롭히는 시스템 안에서 부모와 아동은 서로 통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데, 아동의 부적절한 행동이 증가하면 부모가 강도나 빈도 면에서 더 개입하다가 결국에는 수용하게 되어 이것이 결국 아동의 부적응적 행동을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동이 점점 더 불편해지면 부모는 강압적인 방식을 택하게 되고 아동에 대한 적대감의 수

위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Rubin과 Mills(1990)의 모델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 두려움 많고, 억제된 행동 양식과 부모의 강압적이고 둔한 양육을 거론한다. 이들의 모형에서는 불안정한 부모-유아간 애착 관계가 위축되고 불안한 행동의 발달을 초래하는데, 일단 억제된 행동 양식이 형성되면 부모가 유아의 불안과 불안정성을 감지하고 환경에 대한 유능감을 갖게 하려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 그 결과 유아의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는 최소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유아의 자기-주도적인 대처 기술의 발달을 방해하여, 유아가 사회적인 도전 상황을 직면할 때 불안과 우울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몇몇 선행 연구들에서는, 유아기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서, 남녀별 유아 문제행동의 발달 양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이 시사된다. 유아기 적응과 관련하여 성차를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물 중의 하나는 여아들의 발달 정신병리를 사회적, 발달적 면에서 통합하고자 경험적, 실증적 연구 성과물들을 메타분석한 Keenan과 Shaw(1997)의 연구이다. 이들에 의하면 4세까지는 공격적인 행동에 있어서 성차가 드러나지 않다가 이 시기를 넘어서면서 남아들이 여아들에 비해 공격적인 행동에 더 많이 관여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이 빨라 이로 인해 더 쉽게 사회화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이 낮은 반면, 미취학 연령의 여아들에게서는 남아에 비해 내재화 문제들이 더 많이 보고된다는 것이다. 즉, 여아들은 자신의 행동적, 정서적인 비조절(dysregulation)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지나치게 내면화하여 정서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Lahey 등(1999)도 의사소통의 발달은 여아와 남아에게 있어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걸음마 시기동안 남아들은 의사소통 기술의 수준이 낮아 이것이 사회화를 방해하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나아가 Zahn-Waxler, Cole과 Barrett(1991)는 공감이라는 초기 사회화 과정이 여아들로 하여금 내재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고 제안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여아들이 만성적이고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공감적 감정이 책임감과 죄책감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공감 능력과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회화 능력이 여아들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의 문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내면화하도록 하여 남아에 비해 내재화 문제들이 더 많이 보고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자 아기와 여자 유치원생들이 남자에 비해 공감수준이 높고 남아들에 비해 죄책감을 잘 느낀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예: Zahn-Waxler, Robinson, & Emde, 1992) 남아와 여아의 반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무정한/공감능력이 결여된’ 특성이 관여하게 되는데 남자 유아들에게서는 이러한 특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타인과의 관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환경, 특히 대인관계와 관련된 변인이 이들의 적응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반응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차가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다.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에 대하여 여아의 경우에는 부모가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는 반면, 남아에게는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혹은 남아에 비해 여아에게 모의

통제가 더 심하고 엄격하다는 보고도 있다 (예: Miller, Cowan, Cowan, Hetherington, & Clingempeel, 1993; Webster-Stratton, 1996).

뿐만 아니라 1990년대 들어 HLM, LISREL 등 방법론의 발달로 인해 활기를 띠고 있는 종단 연구결과들 중 유아기 문제행동을 다룬 결과들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남아를 대상으로 한 외현화 문제들에 집중되어 있어서(예: Shaw, Lacourse, & Nagin, 2005; Shaw et al., 2003 등), 관련 결과들이 여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 남게된다. 실제로 여아를 포함하여 2세 유아 383명을 대상으로 3년간 종단 연구를 진행하여 외현화 문제가 ‘만성적으로 임상적 수준’을 보이는 잠재계층(latent class)을 확인한 Hill, Degnan, Calkkins와 Kean(2006)의 연구에서는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을 예측하는 요인이 남아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과 부주의 기질로, 여아에게서는 부족한 정서조절력과 부주의 기질로 일부 차이가 남을 보고한 바 있다. 한편으론 유아기 문제행동에서 성차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종단 연구 결과도 있는데, 만 3세에서 6세 유아의 파괴적 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2년 간격으로 2회 조사한 Combos-Ronto, Olson, Lunkenheimer, Sameroff(2009)의 연구가 그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부정적인 부모 양육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상호작용을 하지만 그 기제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유아기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간의 기제에 있어서의 성차와 관련된 서구의 횡단 및 종단 연구를 종합해보면, 인지적 발달이나 기질적 특성 등 내적인 요인 때문으로든, 부모들이 유아를 대하는 태도와 같은 환경적 변인 때문으로든 남녀 유아별로 두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시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유아기 문제행동에 있어서의 성차에 대한 연구물이 방대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문제행동의 발생 기제나 성차의 안정성 등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를 주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아기 적응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아동의 기질변인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의 조합이 아동의 적응에 중요함을 시사하거나(예: 김영희, 1996; 이미애, 1995; 최영희, 2004 등), 유아의 성에 따라 가족 변인과 행동 문제의 상관 관계나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전연진, 2002)가 있다. 또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행동간 관계를 파악한 연구 결과(권연희, 박경자, 2003), 유아의 기질과 부모 양육 행동, 그리고 문제행동간 관계를 파악한 연구 결과(예: 손소영, 2004; 이찬숙, 현은자, 2008; 최연희, 2000) 등이 보고되었다. 전수연(2002)은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부모 양육의 효과가 일방적이기 보다 아동의 기질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이 연구 역시 남녀 유아를 구분한 것은 아니었다.

관련 연구를 아동기로 확장해보면, 성차를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 가령, 초등학교 4-6학년생들의 규칙 위반 행동을 조사한 하영희(2003)의 연구에서는 여아에 비해 남아의 규칙 위반 행동이 더 많았으며, 이러한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변인도 성별에 따라 다름을 보고하였다. 김선미(2005)는 어머니의 거부적인 양육행동이 남아의 경우에만 불순응 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며,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초등학교 5,6학년 자녀의 문제행동을 비교한 이선희와 도현심(2007)의 연구

에서도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 아동 자신이 지각하는 문제행동이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며, 어머니의 직업 만족도가 여아에게서만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

아동기 연구에서 규칙 위반이나 불순응 등 외현화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한 문제행동의 수준과 이를 예측하는 변인에 있어서의 성차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유아기에 대해서는 이같은 연구가 흔치 않은 상황이다. 즉, 선행 연구들을 통해 유아의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의 유아의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고, 설명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드러났으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각각에 대하여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유아의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을 체계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드물다. 나아가 관련 주제를 성차에 입각하여 심도있게 파악한 연구는 더 찾아보기 어렵다. 만약, 선행 연구를 통해 가능성이 제기된 성차가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면, 남녀 유아에 대한 개입의 방향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기의 적응을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이 시기의 적응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이론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그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부연하면 유아기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라는 두 개의 큰 적응 지표에 대하여 이에 기여하는 주요한 변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과 기질 및 부모양육행동은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자료수집

자료 수집을 위해 2007년도 2월 경기도 김포시와 고양시에 등록된 어린이집 기관장 회의에서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12기관에서 연구참가에 동의를 얻었다. 학기 초에 일시적으로 기관에 적응을 못하는 것이 문제로 보일 수 있는 시기를 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 신학기 적응이 이뤄지는 시점인 2007년 4월말과 5월 초에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각 어린이집에서는 아동 편에 부모용 설문지와 연구동의서를 각 가정의 부모에게 보냈으며, 설문에 응답한 부모는 다시 어린이집으로 설문지를 보냈다. 어린이집에서는 각 아동의 설문을 취합하였고 이를 연구자가 수거하였다. 설문지 응답자의 92.5%(n=314)가 유아의 모였으며, 부가 7%(n=24), 조부모가 0.5%(n=2)였다.

연구대상

설문 결과 총 471부가 수거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자료(척도별 10% 이상 결측치가 있는 자료) 중, 연령이 만 2세와 만 7세는 유아기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고 총 339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성별, 연령별 분포

성별 \ 연령	3세	4세	5세
남	58	69	64
여	55	49	44
	113	118	108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인구학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연령별 남녀 유아의 성비에 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chi^2=1.75, ns$).

연구도구

아동의 문제행동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전반적인 적응과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정한 CBCL 중 본 연구에서는 1.5-5세 연령을 대상으로 부모가 평정하도록 제작된 CBCL을 오경자와 김영아(2008)가 한국판으로 번역하여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시기 아동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기술한 99개의 문항과 개인 고유의 문제를 기재한 후 심각도를 표시하도록 한 3개의 문항을 합쳐 총 10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척도로는 정서적 반응성, 우울/불안, 위축, 신체증상의 호소, 주의집중문제, 수면 문제, 공격적인 행동 등의 문제증후군척도가 있다. 유아용 K-CBCL에서는 정서적 반응성, 우울/불안, 위축, 신체증상의 호소 점수를 합산하여 내재화 문제행동 점수를 산출하며, 주의집중문제와 공격적인 행동 점수를 합산하여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를 산출한다. 유아용 K-CBCL은 각 문제행동 항목에 대하여 0점(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점(가끔 그런 일이 있다), 2점(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 등 3점 리커

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은 것은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가 평정한 유아용 K-CBCL의 국내 표준화 연구에서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alpha=.87, \alpha=.89$ 로 나타났다.

아동의 기질

3세-6세 미취학 연령을 대상으로 기질과 성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Goth, Cloninger와 Schmeck(2003)이 개발한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3-6)를 오현숙과 민병배(2007)가 한국판으로 번역하여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한국판 JTCI의 기질 차원은 자극추구(Novelty Seeking, NS), 위험회피(Harm Avoidance, HA),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RD), 인내력(Persistence, P) 등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주양육자가 0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8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기질 및 성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국내 표준화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와 재검사 신뢰도 계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4개의 하위 기질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6-.87로 나타났으며 한 달 간격으로 실시된 재검사 신뢰도는 .75-.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에 지속적인 영향력이 보고되는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 변인만을 활용하였다. 자극추구 기질은 흥분과 보상을 추구하는 탐색활동과 처벌 및 단조로움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성향에서의 개인차와 관련된 차원이다. 위험회피 기질은 처벌이나 위험이 예상될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해 행동이 억제되며 이전에 하던 행동을 중단하는 성향과 관련된 차원이다.

부모 양육행동

부모양육행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Rohner (1986)에 의해 개발된 부모 수용-거부 질문지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를 전수연(200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PARQ는 온정/애정을 측정하는 20문항, 공격성/적대감을 측정하는 15문항, 무시/무관심을 측정하는 15문항, 모호한 거부/분화되지 않은 거부를 측정하는 10문항 등 4개 하위차원,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Yune과 Kang (2009)이 요인부하량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는 문항을 중심으로 온정/애정(warmth/affection) 양육요인 27문항, 공격성/적대감(aggression/hostility) 양육요인 15문항, 거절/방임(reject/neglect) 11문항 등 3개 요인을 추출한 구조를 따랐다. 온정/애정 양육요인은 ‘나는 우리아이의 좋은 점과 잘한 일들을 이야기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를 칭찬한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집으로 친구들을 데려오게 하고,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등 자녀에게 긍정적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격성/적대감 양육요인은 ‘나는 화가 났을 때 우리 아이에게 소리를 지른다’ ‘나는 아이를 때릴 필요가 없을 때에도 때린다’ ‘나는 화가 났을 때 아이에게 아이에게 벌을 준다’ ‘나는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아이를 겁주거나 위협한다’ 등 아동에게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고 그러한 정서를 체벌이나 소리 지르기 등의 구체적 행동으로 드러내는 행동이 포함된다. 거절/방임 양육행동은 ‘우리 아이가 나에게 짐이 된다’ ‘나는 우리아기가 도움을 청할 때 무시한다’ ‘나는 우리아기가 “엄마는 기억하고 계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잊어 버린다’ ‘나는 우리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

끄러워하거나 죄의식을 느끼게 한다’ 등 은근한 무시와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통해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온정/애정 양육행동, 공격성/적대감 양육행동, 거절/방임 양육행동 각각의 내적합치도 $\alpha = .90, \alpha = .87, \alpha = .79$ 이었다. 본 분석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온정/애정 양육행동과 공격성/적대감 양육행동 요인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처리

아동의 기질, 부모양육행동,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이들 변인에서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지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계적(hierarchical)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녀로 집단을 구분한 후 필요하다면 즉, 이원변량분석 결과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미하다면 연령을 통제하여 나머지 변인이 적응지표의 변화에 기여하는 영향력을 예측하려고 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아동 기질의 주효과를,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부모 양육행동의 주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동의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때 다중공선성과 회귀계수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한 후 상호작용 변인을 산출하였다. 통계 처리는 SPSS 15.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유아의 기질, 부모양육행동, 유아의 문제행동 간 상관 관계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상관분석결과, 유아의 기질과 문제행동간 정적인 상관이 나타나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온정/애정 양육행동과 문제행동은 부적의 상관, 공격성/적대감 양육행동과 문제행동은 정적인 상관이 나타나 부모의 온정/애정 양육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낮아지고, 부모의 공격성/적대감 양육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유아의 두 기질 척도간 상관은 .2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양육행동간 상관은 -.29로 나타나 기질과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이 완전히 독립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기질, 부모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의 차이

아동의 기질, 부모양육행동 및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성별과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미한지,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유아의 자극추구 기질에서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여, 남아가 여아에 비해 자극추구 기질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에 있어서는 성별과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여, 남아가 여아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가 더 높았으며 사후검증 결과 만 3세 유아가 만 5세 유아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내재화 문제행동에서는 성별과 연령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그 둘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였다. 그 외 다른 변인에서는 성별과 연령의 주효과 및 그 둘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간 차이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표 2. 유아의 기질, 부모 양육행동과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간 상관

	자극추구 기질	위험회피 기질	온정/애정 양육행동	공격/적대 양육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자극추구 기질	1					
위험회피 기질	.20***	1				
온정/애정 양육행동	-.28***	-.19**	1			
공격/적대 양육행동	.35***	.30***	-.29***	1		
내재화 문제행동	.37***	.64***	-.27***	.43***	1	
외현화 문제행동	.68***	.40***	-.32***	.47***	.72***	1

** $p < .01$, *** $p < .001$

표 3.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기질, 부모 양육행동, 유아 문제행동의 차이

	남			여			성별 <i>F</i> (1,333)	연령 <i>F</i> (2,333)	성별×연령 <i>F</i> (2,333)	사후검증 (Tukey HSD)			
	3세 (n=58)	4세 (n=69)	5세 (n=64)	3세 (n=55)	4세 (n=49)	5세 (n=44)							
자극	20.09 (8.46)	20.46 (9.29)	18.00 (9.22)	17.00 (7.82)	15.02 (8.67)	13.52 (7.98)	20.78***	2.94	.53				
추구													
위협 회피	22.41 (9.52)	23.29 (9.03)	21.83 (9.02)	24.71 (10.24)	22.37 (8.82)	21.89 (8.43)				.22	.93	.91	
적대적	47.09 (11.41)	48.99 (10.63)	47.17 (11.44)	47.18 (10.40)	47.82 (12.52)	44.75 (9.43)	.30	2.42	.35				
온정적	54.10 (5.88)	54.09 (5.26)	53.23 (6.90)	53.07 (6.81)	55.24 (5.91)	55.32 (5.70)	.15	1.33	1.01				
내재화	9.21 (7.39)	11.35 (8.12)	9.84 (6.36)	12.04 (9.03)	10.10 (7.37)	7.95 (5.57)	.02	2.03	3.27*				
외현화	11.91 (6.89)	11.72 (7.28)	10.02 (6.46)	11.18 (6.53)	9.39 (6.39)	7.59 (5.43)	6.39*	4.79**	.58	3세>5세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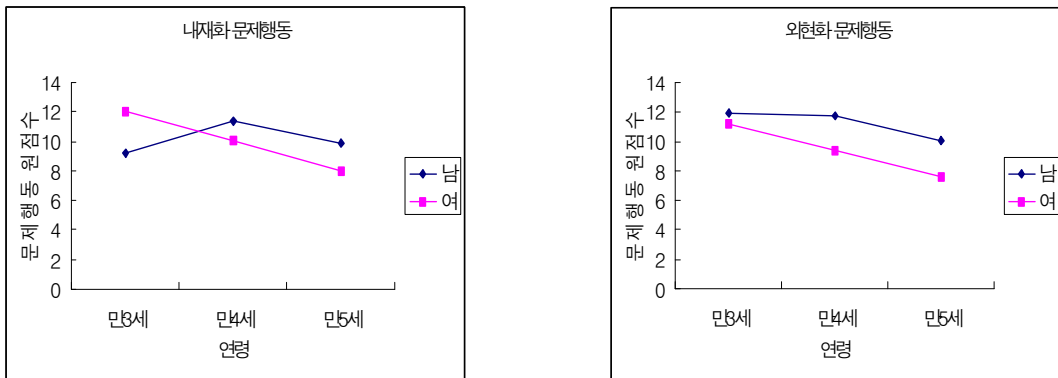


그림 1. 연령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차이

성별에 따른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예측변인의 영향

내재화 문제행동

유아기 내재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지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계적(hierarchical)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녀로 집단을 구분한 후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유아 기질의 주효과를,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부모 양육행동의 주효과

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동의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분석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남아의 경우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예측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고, 기질과 양육변인간 상호작용효과가 이에 유의미한 추가적 설명력을 더했다. 각각의 변인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자극추구 기질과 위험회피 기질 및 적대적 부모양육행동의 효과가 유의미하여 해당 기질의 수준이 높은 경우와 적대적 부모 양육행동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내재화 문제행동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원 상호작용의 효과를 보면, 위험회피 기질과 적대적 부모양육행동의 상호작용이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 이

두 변인의 점수가 높은 남아의 경우 내재화 문제행동에 취약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여아의 경우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예측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남아와 마찬가지로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의 주효과와 이들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가 추가적인 설명력을 더했으나 구체적인 변인은 달랐다. 각각의 변인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자극추구 기질과 위험회피 기질 및 온정적 부모양육행동의 효과가 유의미하여, 해당 기질의 수준이 높은 경우와 온정적 부모양육행동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내재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간 상호작용 효과의 추가적 설명력은 없었다.

외현화 문제행동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표 4. 유아의 기질, 부모양육행동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다회귀분석

예측변인	남			여		
	F	ΔR^2	β	F	ΔR^2	β
1단계	97.02***	.55***		49.87***	.43***	
NS			.31***			.16*
HA			.63***			.59***
2단계	52.52***	.02*		29.26***	.04**	
온정적 양육			.02			-.18*
적대적 양육			.17**			.09
3단계	28.50***	.03*		15.74***	.03	
NS×온정적			-.01			.05
NS×적대적			.02			-.04
HA×온정적			-.08			-.16
HA×적대적			.12 [†]			.03

* $p<.05$, ** $p<.01$, *** $p<.001$, [†] $p=.05$

NS(Novelty Seeking): 자극추구 기질, HA(Harm Avoidance): 위험회피 기질

변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heirarchical)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미했던 것을 고려해 연령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다른 예측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남아의 경우, 연령은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였으며, 유아의 기질과 부모양육행동의 주효과와 각 변인들간의 이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설명량을 더했다. 각각의 변인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자극추구 기질과 위험회피 기질 및 적대적 부모양육행동의 효과가 유의미하여 해당 기질의 수준이 높은 경우와 적대적 부모양육행동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외

현화 문제행동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간 상호작용 효과의 추가적 설명력은 없었다.

여아의 경우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져 연령이 어릴수록 여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남아와 마찬가지로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의 주효과가 추가적인 설명력을 더했다. 각각의 변인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자극추구 기질과 위험회피 기질의 주효과 및 온정적 부모양육행동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여, 연령의 설명량을 통제한 후에도 이들 해당 기질의 수준이 높은 경우와 온정적 부모양육행동 수준

표 5. 유아의 기질, 부모양육행동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다회귀분석

예측변인	남			여		
	F	ΔR^2	β	F	ΔR^2	β
1단계	3.62	.02		9.86**	.07**	
연령			-.15			
2단계	69.65***	.54***		39.84***	.41***	
NS			.65***			.50***
HA			.29***			.33***
2단계	46.27***	.03**		30.17***	.06***	
온정적 양육			-.02			-.20**
적대적 양육			.19**			.14
3단계	26.82***	.02		16.77***	.01	
NS×온정적			-.00			.05
NS×적대적			.08			.08
HA×온정적			-.09			-.06
HA×적대적			.01			.02

** $p < .01$, *** $p < .001$

NS(Novelty Seeking): 자극추구 기질, HA(Harm Avoidance): 위험회피 기질

이 낮은 경우에는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아의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간 상호작용효과는 내재화 문제행동과 마찬가지로 추가적 설명력을 더하지 못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 그리고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두 문제행동 수준에 대하여 필요시 연령의 영향력을 통제하고자도 유아의 기질, 부모 양육행동, 기질과 부모양육간 상호작용 효과가 추가 설명력을 갖는지를 남녀에 따라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에 있어서는 성별과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여, 남아가 여아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가 더 높았으며 사후검증 결과 만 3세 유아가 만 5세 유아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가 더 높았다. 내재화 문제행동에서는 성별과 연령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그 둘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유아의 자극추구 기질에서는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여, 남아가 여아에 비해 자극추구 기질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별에 따라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주요하게 예측해주는 변인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들을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변인

중 유아의 성별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은 부모의 양육행동이었으며, 그 차이는 문제행동의 종류에는 관계없이 동일하였다. 즉, 남아에게서는 적대적 부모 양육행동이, 여아에게서는 온정적 부모 양육행동이 주요 예측변인이었으며, 각 양육행동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모두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남아들은 적대적 양육을 많이 받는 것이, 여아들은 온정적 양육을 적게 받는 것이 문제행동 수준을 예측한다는 것이다. 적대적 양육은 소리를 지르거나 처벌을 하는 등의 거친 방식으로 훈육하는 것을 포함하며, 온정적 양육은 칭찬을 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자녀를 즐겁게 해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연구결과는 여아들이 남아에 비해 관계지향적이고 사회적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Hipwell, Keenan, Kasza, Loeber, Stouthamer-Loeber과 Bean(2008)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보인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양육 지침을 제공하는데, 남아들에게는 거칠고 적대적인 양육을 감소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여아들에게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위험회피가 높은 남아에게는 적대적 양육행동이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의 주효과를 통제하고자도 적대적 양육 점수가 높을 경우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추가적 설명력을 지닌 것($p=.05$)으로 나타났다.므로,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남자 유아의 경우 특히나 소리를 지르거나 매를 드는 등의 처벌적이고 적대적인 양육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즉, 전체적으로는 여아들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정적인 양육이 제공되어야 하겠지만, 새롭고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잠재적인 위협에 민감한 남자 유아

들일 경우에는 기질과 조화하는 형태의 양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기질과 부모양육태도의 상호작용 조합의 영향력을 본 연구 결과만으로 정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아동의 기질은 성별에 따라 구체적인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공통적으로 자극추구 기질과 위협회피 기질이 고유한 설명력을 가졌다. 위협회피 기질은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주로 내재화 문제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녀 유아 모두에게서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 고유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관련 선행연구에서 품행 문제와 관련되는 자극추구 기질이 본 연구에서는 남녀 유아 모두에게서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해 고유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과 고른 상관을 보였던(이 문장은 삭제되어야 함)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 결과들에서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 관련된 기질 변인이 상이했던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한창환(2003)의 연구에서 우울 집단은 위협회피 성향이 가장 높고 인내력과 사회적 민감성이 모두 낮으며 자극추구 성향은 정상 집단과 차이가 없었다. 반면, 품행장애 집단에서는 자극추구 성향만이 정상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임진현(2005)은 인문계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울-품행장애 성향 집단, 우울 집단, 품행장애성향 집단, 통제 집단을 비교한 결과 우울-품행 장애성향 집단 청소년들은 자극추구와 위협회피가 모두 높았고 우울 집단은 위

협회피, 품행장애성향 집단은 자극추구가 높았다. 김보경과 민병배(2006)의 연구에서도 우울한 청소년들은 위협회피 기질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하나는 유아기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개념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실제로 드러나는 현상에서도 차이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유아기에는 그 구분이 다른 발달 시기에 비해 분명하지 않아 주변의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에 대한 비조절(dysregulation)의 형태로 서로 공유하고 있는 측면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위협회피 기질이 높은 유형은 새로운 환경이나 자극 등에 대한 불안과 경계가 높는데 이것이 유아기 특성으로 인해 고집을 부리거나 떼를 쓰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나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주의집중의 문제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 때문에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평가된 것과는 다른 것으로, 위협회피 기질로 인한 환경과의 갈등이 오인되어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평가되었던 것이라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런 기질적 특성의 유아들은 내재화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형태로 그 문제유형이 분화·이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특히 위협회피 기질이 높은 유아에 대해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이들의 적응을 잘 감찰하고,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예방적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두 문제행동을 의미하게 예측하는 기질변인이 구체화되는 지에 대한 관련 중단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전체적으로 볼 때 두 문제행동에서 남아들은 여아들에 비해 기질의 설명력이 더 많았으며 여아들은 남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양육행동의 설명력이 더 많았다. 일찍이

Gabriel과 Gardner(1999), Maccoby(1990) 등이 지적한대로, 여아들이 관계 지향적이고,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특성이 유아기에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결과는 여자 유아들의 심리적 적응에는 부모를 비롯한 주변 타인들이 여아들을 다루고 돌보는 방식이 남아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넷째, 자극추구 기질에서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여, 남아가 여아에 비해 자극추구 기질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에서 남아와 여아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모를 비롯한 양육자는 새로운 환경과 낯선 자극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모험을 즐기는 자극추구 기질 자체를 문제로 지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자극추구 기질을 문제시 하고 힘들어하는 양육자의 지각이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을 높게 보고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극추구 기질의 수준이 높은 여아들은 남아에 비해 주 양육자와 교사 등 주변 성인에 의해 더 부정적으로 지각될 가능성이 시사된다. 그렇다면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남아와 자극추구 기질이 높은 여아는 다른 유아에 비해 기질적 특성이 특별히 더 잘 고려되어야 할 대상으로 파악된다. 즉, 주변 세계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아동에 대해서는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탐색할 제공해야 함을 부모에게 교육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험회피 기질 수준이 높은 아동은 잠재적 위협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들이 주변 성인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적대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가능한한 자세히 이 아동이 접해야 할 환경과 사건을 설명해주고, 성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경험에 노출시켜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에서는 성별과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이 둘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 연령 구간은 만 3세-4세 사이인데 이 시기동안 여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이 감소하는 반면, 남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증가하고 있다.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사회화가 시작되는 만 4세 이후 여아들은 타인 조망과 공감 능력의 발달로 내재화 문제행동이 증가할 것이라 설명하는데 그 이전 시기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미하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만 3세-4세 동안 흔히 보고되는 내재화 문제의 행동 목록이 무엇인지, 해당 목록과 그 빈도에서 성차가 드러나는지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유아기와는 달리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내재화 문제행동에서의 성차가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일례로 빈곤 청소년의 우울과 행동문제를 1년 간격을 두고 연구한 김은이와 오경자(2006)에 따르면, 수급 여부에 상관없이 1차 측정 시기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별의 주효과는 1차 시기의 우울을 통제하고 나서도 2차 시기의 우울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왔다. 초기 청소년기에 우울-비행 공존집단을 확인한 이주영과 오경자(2010)의 연구에서도 우울은 여학생이 더 높은 수준을, 비행은 남학생이 더 높은 수준을 보여 성차를 드러내었다. 유아기에 비해 초기

청소년기는 각 문제행동에서의 성차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를 본 연구에서 다루기는 부족하다. 추후 각 발달단계에 따라 문제행동의 성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다 명확히 밝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여섯째,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에서는 남아의 점수가 여아의 점수보다, 만 3세가 만 5세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4세 이후 남아들이 여아들에 비해 공격적인 행동에 더 많이 관여하게 된다는 Keenan과 Shaw(199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연구에서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만 3세 여아들도 만 3세 남아들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더 낮았다.

유아기의 적응을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나누어 각각을 설명하는 주요 예측변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한 본 연구는 이 시기 유아의 적응에 대해 통합적인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아기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이 성별에 따라 다르며, 그 차이가 부모양육행동에서 두드러진다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개입 및 예방 시 임상적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아동의 기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하위 기질의 특성을 부모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거나, 특정 기질 점수가 높은 아동 및 기질 점수간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적응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아동에게는 적절한 개입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이에 해당되겠다. 유아 교육기관과 상담기관을 통해 부모 교육, 부모 참여 프로그램 등의 방법으로 본 연구 결과들이 교사와 부모들에게 제공된다면 유아기의 정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 임의 선정된 기관에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만 3-5세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때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기질에 대해서 어머니의 보고에만 의존하였는데 각각의 질적 수준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기보고형 질문지 외에 부모-자녀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양육행동과 실험실내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측정되는 유아의 기질에 대한 고찰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유아의 문제행동을 단일한 맥락에서 단일한 정보원에 의해 1회 측정하였는데 특정 행동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형되고 재조직되게 마련이므로 유아의 적응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개입과 예방을 위해서는 단일 정보원에 의한 1회적 평가를 넘어선 종단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아기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이 다르다는 것을 보였으나 그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설명이 없는바 추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이르는 구체적인 기제를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연희, 박경자 (200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성,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 아동학회지, 24, 27-44.
- 김보경, 민병배 (2006). 청소년 우울과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 기질 및 성격의 관계. 한

- 국심리학회지: 임상, 25, 221-236.
- 김선미 (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괴롭힘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희 (1996). 기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 19-32.
- 김은이, 오경자 (2006). 빈곤 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1년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5, 381-396.
- 손소영 (2004). 취학 전 아동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따른 기질 특성과 부모 양육태도의 차이.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경자, 김영아 (2008). CBCL 1.5-5 유아 행동평가척도-부모용 매뉴얼. (주)휴노컨설팅: 서울.
- 오현숙, 민병배 (2004). 기질 및 성격 검사 매뉴얼-청소년용. 서울:(주)마음사랑
- 이미애 (1995).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부조화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선희, 도현심 (2007).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5), 269-284.
- 이주영, 오경자 (2010). 청소년기 우울-비행 공존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및 성별의 효과: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 53-72.
- 이찬숙, 현은자 (2008). 유아의 기질, 사회적 유능감, 감성지능, 도덕성 및 부모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9, 223-238.
- 임진현 (2005). 우울-품행장애성향 청소년의 기질과 자기개념 및 정서 특성. 미발표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전수연 (2002). 아동 기질과 부모 양육 형태에 따른 행동발달의 차이: 발달적 맥락에 따른 '조화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미발표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전연진 (2002).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미발표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최영희 (2000). 학령전 아동의 기질, 부모의 훈육방식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영희 (2004).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자기-유능감 차이에 관한 연구 -조건모델에 근거하여-. 아동학회지, 25, 17-32.
- 하영희 (2003).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4(4), 29-40.
- 한창환 (2003). 생물유전적 기질과 가정환경이 청소년기 우울, 품행장애성향 및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성격, 자아상 및 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 미발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Achenbach, T. M., & Mc-Conaughy, S. H. (1997). *Empirically based assess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Practical applications*. Newbury Park, CA: Sage applications.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ABA Preschool Forms & Profiles*.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Biederman, J., Rosenbaum, J. F., Jerrold, F., Bolduc-Murphy E. A., Faraone, S. V., Chaloff,

- J., Hirshfeld, D. R., & Kagan, J. (1993). A 3-year follow-up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behavioral inhibi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 805-821.
- Campbell, S. B., Shaw, D. S., & Gilliom, M. (2000). Early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oddlers and preschoolers at risk for later mal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 467-488.
- Combs-Ronto, L. A., Olson, S. L., Lunkenheimer, E. S., & Sameroff, A. J. (2009). Interac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d children's early disruptive behavior: Bidirectional associations across the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entr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7, 1151-1163.
- Côté, S. M., Vaillancourt, T., LeBlanc, J. C., Nagin, D. S., & Tremblay, R. E. (2006). The development of physical aggression from toddlerhood to pre-adolescence: A nation wide longitudinal study of Canadia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 71-85.
- Fanti, K. A., & Henrich, C. C. (2010). Trajectories of Pure and Co-Occurring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from age 2 to 12: Findings the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study of early child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46(3), 1159-1175.
- Frick, P. J., O'Brien, B. S., Wootton, J. M., & McBurnett, K. (1994). Psychopathy and conduct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700-707.
- Gabriel, S., & Gardner, W. L. (1999). Are there "his" and "hers" types of independence? The Implications of gender differences in collective versus relational interdependence for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642-655.
- Gilliom, M., & Shaw, D. S. (2004). Codevelopment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 313-333.
- Goth, K., Cloninger, C. R., & Schmeck, K. (2003). Das Junior Temperament und Charakter Inventar für das Kindergartenalter-JTCl/3-6. Klinik für Psychiatrie und Psychotherapie des Kindes- und Jugendalters der J. W. Goethe-Universität Frankfurt.
- Hill, A. L., Degnan, K. A., Calkins, S. D., & Keane, S. O. (2006). Profiles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for boys and girls across preschool: The roles of emotion regulation and inatten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2, 913-928.
- Hipwell, A., Keenan, K., Kasza, K., Loeber, Rolf, Stouthamer-Loeber, M., & Bean, T. (2008).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663-677.
- Kagan, J. (1997). Temperament and the reactions to unfamiliarity. *Child Development*, 68, 139-143.
- Keenan, K., & Shaw, D. S. (1997). Developmental and social influences on young girls' early problem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21, 95-113.
- Lahey, B. B., Waldman, I. D., & McBurnett, K. (1999). Annotation: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An integrative casual

- model.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 669-682.
- Leblanc, N., Boivin, M., Dionne, G., Brendgen, M., Vitaro, F., Tremblay, R. E., & Pérusse, D. (2008). The development of hyperactive-impulsive behaviors during the preschool years: The predictive validity of parental assessm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977-987.
- Maccoby, E. E. (1990). Gender and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account. *American Psychologist*, 45, 513-520.
- Mick, M., & Telch, M. (1998). Social anxiety and history of behavioral inhibitions in young adul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 1-20.
- Miller, N. B., Cowan, P. A., Cowan, C. P., Hetherington, E. M., & Clingempeel, W. G. (1993). Externalizing in preschoolers and early adolescents: A cross-study replication of a family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9, 3-18.
- Nigg, J. T. (2006). Temperament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 395-422.
- Olson, S. L., Sameroff, A. J., Kerr, D. C. R., Lopez, N. L., & Wellman, H. M. (2005). Developmental foundation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young children: The role of effortful contr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7, 25-45.
- Patterson, G. R., Reid, J. B., & Dishion, T. J. (1992). *Antisocial boys*. Eugene, OR: Castalia Press.
- Rettew, D. C., Copeland, W., Stranger, C., & Hudziak, J. J. (2004). Associa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DSM-IV externalizing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25, 383-391.
- Rohner, R. P. (1986). *The warmth dimension: Foundation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California: SAGE.
- Rubin, K. H., Hastings, P. D., Stewart, S. L., Henderson, H. A., & Chen, T. (1997). The consistency and concomitants of inhibition: Some of the children, all of the time. *Child Development*, 68, 467-483.
- Rubin, K. H., & Mill, R. S. (1990). Maternal beliefs about adaptive and maladaptive social behaviours in normal, aggressive, and withdrawn preschool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419-435.
- Sanson, A., Smart, D., Prior, M., & Oberklaid, F. (1993). Precursors of hyperactivity and aggress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 1207-1216.
- Shaw, D. S., Gilliom, M., Ingoldsby, E. M., & Nagin, D. S. (2003). Trajectories leading to school-age conduct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9, 189-200.
- Shaw, D. S., Lacourse, E., & Nagin, D. S. (2005).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onduct problems and hyperactivity from ages 2 to 10.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 931-942.
- Shaw, D. S., Owens, E. B., Giovannelli, J., & Winslow, E. B. (2001). Infant and toddler pathways leading to early externalizing behavio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 36-43.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 Weisz, J. R., Suwanlert, S., Chaiyasit, W., Weiss, B., Walter, B.R., & Anderson, W. W.(1988). Thai and American perspectives on over and undercontrolled child behavior problems: Exploring the threshold model among parents, teachers, and psychologis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601-609.
- Yune, H., & Kang, J. (2009). 1-Year St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1.5-5. Post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ASEBA Conference. Burlington, VT., USA.
- Zahn-Waxler, C., Cole, P., & Barrett, K. C. (1991). Guilt and empathy: Sex differences and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In K. Dodge & J. Garber (Eds.), *Emotional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pp. 243-267).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ahn-Waxler, C., Robinson, J. L., & Emde, R. N. (1992). The development of empathy in twi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038-1047.
- 1 차원고접수 : 2010. 11. 5.
심사통과접수 : 2011. 3. 2.
최종원고접수 : 2011. 3. 18.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Preschoolers' Age, Temperament and Parenting for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Kang, Ji Hyeon

Dongduk Womens University

Oh, Kyung Ja

Yonsei University

In order to explore the impact of gender in the effects of age, temperament, and parenting on preschoolers' psychosocial problems, 339 preschoolers, 3-5 year old, were assessed using parent report measures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emperament, and parenting. The results of ANOVA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effects of age and gender for externalizing problems 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age and gender for internalizing problems were significant. Second, the important predictors of preschooler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were different by gender. In boys, Novelty Seeking(NS), Harm Avoidance(HA), and hostile parenting significantly predicted both problems. In girls, NS, HA, and warm parenting significantly predicted both problems. In addition, girls were more strongly influenced by parenting whereas boys were more influenced by their tempera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highlight some important suggestions for prevention strategies for preschoolers' behavioral problem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further discussed.

Key words : *Internalizing Problems, Externalizing Problems, Temperament, Parenting Behavior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